

### 생애에 대하여

박동진은 1899년 4월 29일 平北 定州에서 출생하였다. 1915년 3월 定州 五山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17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과에 입학하였다. 이 당시 건축학을 택하는 우리들의 선배들이 거의 그러하였듯이 박동진도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없이 上京하였다가 선배들의 충고가 진로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본래 선비집안의 출신이었으며, 중학교 졸업후 문학을 선택하여 일본의 대학에 유학을 갈 예정으로 입학원서를 내 놓고 渡日途中에 서울을 들렀다. 서울에서 만난 선배들에게 독일유학 준비중이며, 고학을 해서라도 문학을 공부하려한다고 상의하자, 선배들은 이제부터는 기술전공이 시대적 요청이며 평소에 미술을 좋아했으니 서울에 새로 생긴 경성공업전문학교의 건축과에 진학해 보라는 충고를 받았다 한다. 우선 시험을 보고 합격했으나, 원래 계획했던 것과 위남만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고민하다가 주위의 권유로 입학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건축과를 졸업하고 나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였으나, 이걸 공부하면 장래에 집짓는 工人이 된다는 막연한 추측만을 가지고

## 한국의 건축가-박동진

Korean Architects - Park Dong-Jin

### 생애와 작품

윤인석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n In-Suk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룡(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룡(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과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i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있었다한다. 다만 그를 건축과에 지망하도록 하는 데에 유일하게 큰 힘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중학시절에 배웠던 역사에서 미켈란젤로도 미술가인 동시에 위대한 건축가라는 기억이었다. 하지만, 건축가가 되어서 모든 건물을 설계도 하고 시공에 참여도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가 학창시절의 추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그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서 지내는데 材料強弱時間에 '밴딩모우먼트'의 해설을 들었다. 이 단어부터가 어찌나 인상적이었는지 班友끼리 만나서 '밴딩모우먼트', '밴딩모우먼트'하고 인사 대신 '조우크'를 했던 기억도 새롭거니와 또 意匠學時間에 '심메트리'라는 단어를 배우고는 역시 이 단어에 매혹되어 班友였던 金世演君과 같이 만나면서 '심메트리', '심메트리'하고 웃으면서 '조우크'를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조우크'로만 여길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학문에 대한 감각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론은 지식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

그의 학창시절의 마지막 해가 되었어야 할 1919년에 3.1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는 이 운동에 가담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앞장섰다는 이유로 검거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반년을 지냈고, 2년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출감하였다. 이어 그는 만주와 시베리아로 방랑 길을 떠났다가 1년 반이 흐른 후, 배움을 다시 시작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귀국하여 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공업전문학교가 朝鮮總督府諸學校官制에 따라 학교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에 재입학하여 건축과를 다시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 1년을 보낸 후 1926년 3월 20일에 졸업을 하였다. 어찌 보면 박길룡 보다 1년



박동진(1899년~1980년)

늦게 입학하여 경성고등업학교를 제2회로 졸업하여 초창기의 졸업생으로서 역할을 해 내었을텐데, 식민지의 청년으로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건축계의 일선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때 나이 27세로 순조롭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면, 경력 8년의 중견 실무자였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그는 졸업 후, 조선총독부 회계과의 기수로 취업하게 되었다. 졸업할 당시부터 건축가로서 커가는 자신의 모습과 심경을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표1〉 박동진의 작품리스트

작 품	연 도
普成全文學校本館(現 高麗大本館)	1933~34年
朝鮮日報社屋(現無, 現코리아나 호텔 자리)	1934~35年
雅敍園(現無)	1934年
普成全文學校圖書館	1935~37年
五山中學校本館(平北定州)	1935年
五山中學校大講堂	1936年
五山中學校科學館	1936年
中央中學校本館	1936年
中央中學校大講堂	1937年
明新中學校敎本館(載寧)	1937年
明新中學校大講堂	1938年
明新中學校寄宿舍	1939年
大田地方法院廳舍	1939年
平安工業學校本館	1940年
普成中學校別館敎室	1940年
平安工業學校大講堂	1941年
京紉南川工場(南川)	1942年
李聖鳳小兒科醫院	1942年
白麟濟外手術室	1944年
榮樂敎會	1948年
南大門敎會	1954年
高麗大學校부속建物	1955~1965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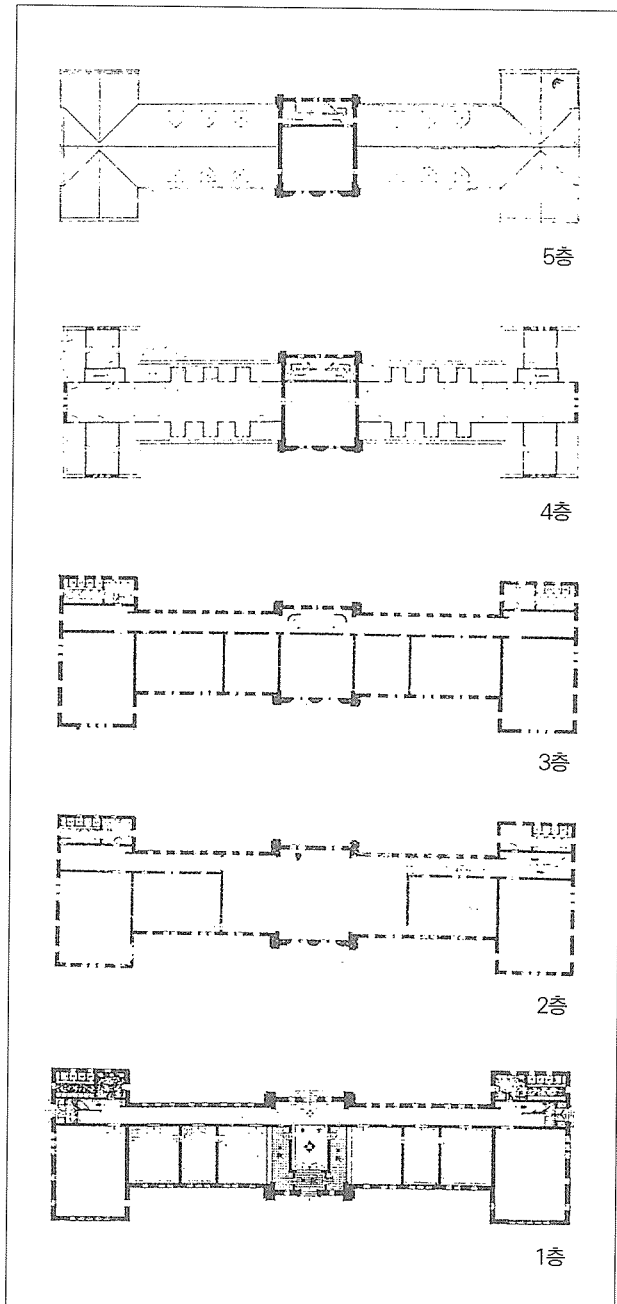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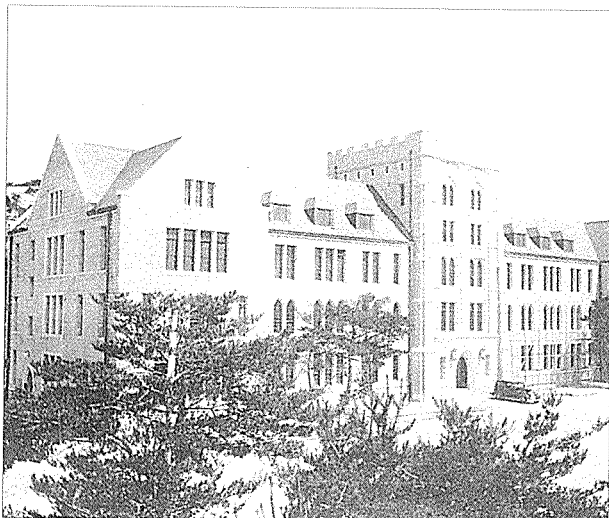


그림 1. 보성전문학교 평면도



보성전문학교 본관(1935)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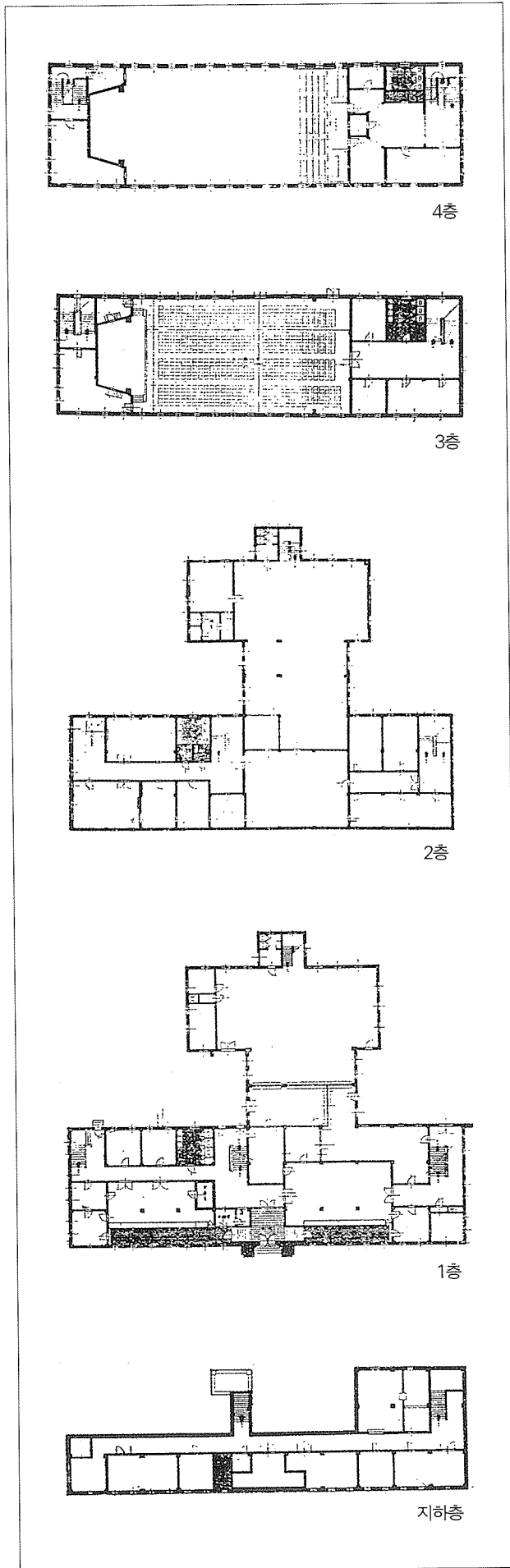


그림 2. 조선일보사옥 평면도

... 어느덧 나머지 1년도 끝나고 졸업시기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졸업을 하면 취직을 하게된다는 것도 몰랐다.

... 학교 당국의 斡旋으로 총독부 建築課에 취직이 되었다. 이렇게 졸업이라고는 하였지만 진정으로 건축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 정의조차 파악치 못한채 그런 대로 취업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직업인이 되어 생활수단도 해결이 된 것이다. 이것들도 예기치 않던 현상이었다. 이제 나는 현실에 충실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우선 동료가 된 그들(일본인-필자 주)의 집무태도를 배웠다. 십년을 두고 실무 즉 설계도 배우고 시공법도 배웠다. 이러한 동안에 건축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터득했다고 생각하고 건축가로 자처하기 시작했다...

1936년 4월에 기사로 승진하고 1938년 4월에 총독부를 사직할 때까지 그는 실질적인 건축수업을 총독부에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이 총독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많은 프로젝트에 관여하였을 것이나, 이 기간 중에 박동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본관과 도서관을 설계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의 한인 사회의 건축전문인으로서 과외의 일을 통하여 민족을 위해 이바지했다고 여겨진다. 즉 <표1>에서 보다시피 총독부에 재직하고 있던 1938년 이전에 관여하였던 작품이 그 이후 시기의 (광복전 것만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작품보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의 작품은 민족교육을 실현하던 학교건축이 대부분이며 더구나 고향을 중심으로 한 지연과 한인들 사이의 연고에 의해 연결된 일들을 주로하였다. 이는 공직에 있으면서 단지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전문인으로서 민족을 위한 봉사로 행한 일들이라 생각된다. 1938년 5월, 태평건물주식회사를 창립하여 건설사업에 손을 대었다.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근면 성실하게 일하여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고향 정주에 토지를 수만평 구입하여 노후에 전원생활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1945년 8월, 46세때 광복을 맞았으나 38선 이북에 속해 버린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6.25를 겪으면서 혼란을 겪었다. 광복 다음해인 1946년 5월에 박동진 건축연구소를 자영하고, 1951년 3월 부터



조선일보 사옥(1935년)

는 대구에서 개교한 청구대학 토건학과 주임교수로 재직하였다. 그 후, 1961년 당시의 젊은 후배들과 함께 紀新建築研究所를 개설하여 대표직을 수행하였다. 1960년대 초에 그는 약 1년간 구미 각국을 돌아보고 귀국하였는데, 국내의 모든 정세가 변해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업무를 후배들에게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1975년에는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작품상을 수상받았고, 80세때인 1979년 봄에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다가 1980년 5월 30일 향년 81세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타계하였다.

### 작품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총독부에 재직하면서 부업으로 관여하였던 작품들 중, 당시의 한국인들이 설립한 민족 학교들이 대다수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성전문학교 본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그의 부친과 친교가 있는 仁村 金性洙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 보성전문학교 교사를 설계하게 되었다. 중앙학원을 인수, 안암동 일대에 70여만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보성전문 교장에 취임한 지 1년만에 인촌은 보성전문 신교사 본관을 계획하고 한국인 건축가 박동진에게 설계를 의뢰하였다. 이 당시의 상황을 박동진은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 1933년 늦은 가을 어떤 날, 내가 맡아 감독하고 있던 某親友의 주택건축 현장에 (인촌)선생이 나타나셨다. 매일 같이 오셔서 구경을 하고 가시곤 하였다. 여기 에 현상윤(당시 중앙중학교 교장-필자주)씨가 나오셔서 나를 소개해 주어 선생을 알게 되고, 그 후부터 주고 받은 회화가 지속된 것인데, 그 당시 선생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없는 줄로만 아신 모양이었고, 또 나로서도 선생의 胸中에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도 해 보지 못하였다.. ...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나는 나도 모르게 선생의 사고방식에 합치되는 점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은 취하지 않기로 하자는 것, 모든 면에 있어서 견실하자는 것, 무계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고려대학교의 基地로서 70만여坪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선생의 의도하에 모두다 성취된 것이다.

석조건물이 아니고는 고려대학교의 건물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도 선생의 持論이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론과 그 기획하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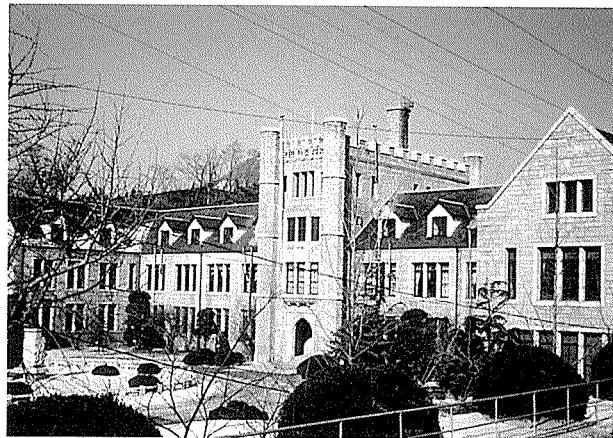
... 일찌기 저 본관과 도서관이 완성 되었을 적에, 일본인이 선생을 찾아오면 기필코 안암동으로 끌고 나와서 이 건물들을 보여 주시곤 하시었다. 그럴 때에 상대방이 '설계자는 누구인가' 물으면 '이것은 조선인 某가 설계한 것' 이라고 설명하시고 상대방이 혹 의아한 표정을 하는 때에는 선생의 心中에 쾌재를 부르시곤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서양인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상대방이 물어 보지도 않는 말을, '이것은 한국사람의 손으로 설계한 것' 이라고 자진설명을 하시던 것은 선생으로서 최고 만족표시의 나이였었다. ... ('인촌 김성수'에서 재인용)

그리고 또 한군데의 기록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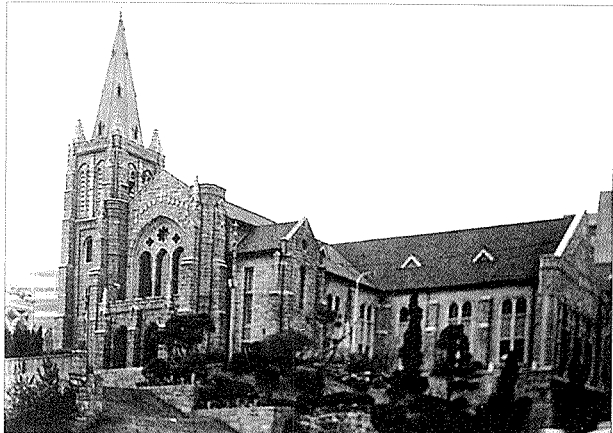
... 우선 본관부터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다. 선생이 구미 각국을 歷訪하시면서 얻으신 腹案은 우선 석조건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당시만해도 서울에 석조건물이라고는 옛 조선총독부(원문에 '현 중앙청'이라 쓴 것을 편의상 고침-필자)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던 때였다. 나는 석조건축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탐색하고 연구했다. 우선 재료의 적절한 용법과 구조의 合 理 등은 물론이려니와 건축양식에 대해서는 더욱 망서린 점도 없었다. 내가 최종 결정짓고 실설계에 착수했는데 선생의 의견도 많았다. 여러 면으로 절충해서 案出한 것이 현 고려대학교 본관이였다. 건물과 자연의 조화와 그 구조와 재료미의 일치의 형식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외관상 窓口의 배열이라든가 평면에 억지가 있는 것은 선생의 주문에 의한 것으로 나는 지금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만 싶다. 그 후 고대 도서관이라든가 여타 건물들의 석조건축에 대해서는 선생께서도 설계면에 일절 간섭을 하지 않으셨고 나도 자신을 얻게 되었다....

(대한건축학회지 '특집 : 30년회고' 중에서)

선각자 인촌은 이처럼 보성전문학교 본관설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관여하였다. 어찌보면 절반 정도는 건축주의 설계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33년 본관 신축을



중앙중학교 본관



영락교회(1948년)

마음먹은 인촌은 민족 건축가가 보성전문 의 건물을 설계해야 한다고 일찌감치 생각하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알게된 박동진을 자신의 자택 신관 2층에起居해놓고 약 두달동안 침식을 같이 하였다. 건축에 남다른 취미와 일가견을 가지고 있던 인촌은 구미여행중에 찍어온 각국의 대학건물의 슬라이드 사진을 가지고 토론했고, 박동진과 의견이 충돌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어떤 때에는 화가 난 박동진이 “그럼 선생님이 설계를 하십시오”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 버리는 일도 있었다.

박동진의 작품은 조선일보사옥(1935년 作)과 같이 모던한 건물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석조건축물이었다. 양식적으로도 보성전문학교 본관에서부터 비롯된 네오 고딕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향인 평북 정주의 오산중학교 각교사와 보성전문과 같은 재단의 중앙중학교의 새로운 본관(구 본관 일본인 나카무라 요시헤이의 설계로 빨간벽돌 건물이었으나, 화재로 소실된 후 박동진설계로 석조건물이 건립되었다)에서도 일정한 스타일의 설계안들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경향의 건축물들은 광복후에도 계속되어 영락교회, 남대문교회에서 그의 특기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작품 경향, 특히 학교건축에서 고딕양식의 석조건축이라는 공식이 꽤나 오랫동안 이 나라의 교육기관의 건축문화를 이끌었다. 광복전후에 세워지는 학교건물중, 일본계의 관립학교들은 빨간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하였으나, 민족자본으로 세워지는 학교들은 석조로 세워지는 것들이 많았음은 보성전문과 그 설계자 박동진의 영향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생각한다.

### 마무리

박동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사옥과 보성전문학교의 건축개요가 나란히 실려 있는 ‘朝鮮と建築’의 1935년 9월호에는 두 건물의 주요 사진과 도면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朝鮮總督府施政 25周年記念 博物館建築設計圖案 懸賞募集’의 안내문이 들어 있다. 그 대지는 명성황후의 시해장소인 경복궁 내의 북쪽끝이며, 현상설계의 여러 가지 주의사항중 ‘건

물의 양식은 주변환경에 어울리도록 하여 동양취미를 가미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경복궁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하라는 것 보다, 당시 대동아공영권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이 그들의 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방(만주)과 조선에서 건축적으로 공들여 이론적 작업을 해오던 ‘제관양식’(합리주의적 현대식 건물에 지붕만 기와지붕을 얹어 동양적인 기분을 내는 디자인)의 건물 한 개를 식민지배 4반세기를 기념하면서 조선의 궁내에 세우려한 것이다. 결국 당선자는 일본인이었고, 그들의 전생수행 때문에 전체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일부만 건설하였다. 현재 경복궁내의 북쪽 끝에 있는 ‘민속 박물관’이 바로 그 건물이다.

한 사람의 건축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내놓기 시작한 때에 ‘시정 25주년’, ‘동양취미 운운’하며 조선의 궁을 다시 한 번 유린하는 일인들의 지배를 경험하며, 그는 대한건축학회 30주년에 후배들에게 ‘우선 모든 이론에 충실하여야 하고, 시야를 넓혀서 많은 작품에 접촉해서 豐富한 아이디어를 길러 둘 것’, ‘문화의 자주성을 찾아, 차원 높은 견해로써 국제정세의 대열에 참여할 것’을 충고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하다며 건축가들이 술선해서 이런 방면에 앞장서서 愛護運動을 벌이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서거한 다음달인 1980년 6월에, 당시 대한건축학회장이던 윤장섭교수는 학회지의 추모란을 통하여 ‘박 선생님이 자주 되풀이 하시던 이야기중 “건축가는 항시 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잊혀지지 않는 것이었으며, 그의 인자하고 온유하며 조용한 가정적인 생활태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정진하려는 건축가로서의 의욕이 불타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분의 인생행적은 우리 후배건축인들의 훌륭한 귀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애도하고 있다.

(본문의 인용은 : “인촌 김성수”-인촌기념사업회 刊 (1976), ‘대한건축학회지 75년 8월호’ “특집 : 30년회고”, “대한건축학회지 80년 6월호”. “고 박동진 참여이사를 추모함” 등을 참조함)